

# 테마감리가 미청구공사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연호\*

전남대학교 회계학과 석사과정

김도희\*\*

전남대학교 회계학과 석사과정

엄재연\*\*\*

전남대학교 회계학과 석사과정

전성일\*\*\*\*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는지 검증한다. 미청구공사에 대한 테마감리 대상지정 배경은 공사 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회계적 의혹의 적정성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미청구공사 금액 계산 시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사진행률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 만약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할 목적으로 진행률을 부풀린다면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일부 건설업계의 어닝쇼크를 비롯하여 수주산업에서의 회계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잇달은 부실과 함께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는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미청구공사 과대계상 이슈는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방법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asu(1997)의 보수주의 측정 모형을 이용하여 미청구공사 금액을 반영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동 기업의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요분석 결과로는 테마감리 지정 이후에 미청구공사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를 통해 테마감리 지정 목적인 미청구공사금액의 과대계상 금지와 공시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테마감리, 미청구공사, 보수주의

## 1. 서론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시행으로 인해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은 폐지되었다. K-IFRS 제1115호에서는 별도로 건설계약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여전히 K-IFRS 제1011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김영훈·박성욱, 2019).

K-IFRS 제1011호에서는 ‘건설계약’에서는 미청구공사 총액을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청구공사 금액 계산 시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사진행률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 경영자가 이익의 과대계상을 목적으로 진행률을 부풀릴 경우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13년 일부 건설업계의 어닝쇼크를 비롯하여 수주산업에서의 회계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

\* 제1저자, 전남대학교 회계학과 석사과정, qkrdusgh456@naver.com

\*\* 제2저자, 전남대학교 회계학과 석사과정, dohee3534@gmail.com

\*\*\* 제3저자, 전남대학교 회계학과 석사과정, eju7656@naver.com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seongiljeon@gmail.com

가 되었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대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부실과 함께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는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위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금융감독원, 2015. 12. 24.자 보도자료).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이 미청구공사 회계처리의 보수주의 성향을 증가시켰는지 확인하여 테마감리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 II. 선행연구 검토

### 2.1. 미청구공사

미청구공사와 관련한 선행연구에는 주가와 가치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이양식·박종찬, 2017; 김영훈·박성욱, 2019; 신혜정·김수인, 2019).

이양식·박종찬(2017)은 가치관련성 분석을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미청구공사계정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미청구공사 계정금액이 포함된 IFRS 도입 이전의 매출채권과 IFRS 도입 이후 미청구공사 계정금액이 제외된 매출채권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FRS 도입 이후 미청구공사 계정금액이 제외된 매출채권의 주가관련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미청구공사계정의 자산성을 인정하지만 현금회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추가적으로 IFRS 도입 이후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 매출채권 계정의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김영훈·박성욱(2019)의 연구에서는 건설업의 미청구공사는 주가와 유의한 양(+)의 가치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on-Big4 감사인이 감사한 건설기업의 미청구공사의 가치관련성은 Big4 감사인이 감사한 건설기업의 가치관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의 비율이 높은 건설 기업의 미청구공사의 가치관련성은 그렇지 않은 기업의 가치관련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혜정·김수인(2019)은 핵심감사제도 도입 이후 미청구공사 잔액의 가치관련성이 변동되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핵심감사제도의 도입은 미청구공사 잔액의 가치관련성과 전반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감사항목의 구체성과 미청구공사 잔액의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 값

은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감사항목을 구체적으로 보고할수록 미청구공사 잔액의 가치관련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구로 먼저 최성호·최정호(2017)는 매출액 혹은 자기자본 대비 미청구공사의 비율이 큰 기업일수록 부채조달비용은 유의적으로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미청구공사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채조달비용이 유의하게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배홍기 외(2018)은 파트너와 등록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은 미청구공사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체산업, 건설조선업, 비건설조선업의 산업별 구분과 미청구공사, 비정상미청구공사, 정상미청구공사의 어떤 조합에서도 유의한 음(-)의 값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미청구공사를 수준변수 대신 전년대비 변화율 변수로 사용해도 동일하였다. 다만 극단적으로 미청구공사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감사시간은 비정상미청구공사에 대해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 결과는 전체 표본과 건설조선업 표본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은 미청구공사 수준이 위험하게 높을 경우에만 경영자의 경영판단을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미청구공사의 자산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미청구공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신혜정·김수인, 2019; 이양식·박종찬, 2017; 김영훈·박성욱, 2019; 최성호·최정호, 2017; 배홍기 외, 2018). 그러나, 미청구공사의 보수주의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보수주의는 호재(Good News)를 이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수준의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고, 악재(Bad News)는 적시에 가급적 빨리 손실로 인식하는 비대칭적 회계처리 특성을 의미한다(Basu 1997). 이러한 보수주의의 특징은 미청구공사의 과대산정이라는 테마감리 지정사유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척도로써 부합한다. 본 연구는 테마감리 도입 후 미청구공사의 보수주의를 검증하여 테마감리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 2.2. 테마감리

테마감리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테마감리의 효과가 존재함을 검증하였다(이계원·한경희, 2018; 황선영·박종성, 2020; 황주희 외, 2020).

이계원·한경희(2018)는 기업들의 인위적인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의 조정행위를 방지할 목적의 매출채권 매각

거래 등에 대한 테마감리 지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감독당국의 의지가 경영자로 하여금 회계기준과 관계되는 재량적 발생액에 기초한 이익조정 보다는 감사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황선영·박중성(2020)은 2017년 금융감독원의 개발비의 자본화비율에 대한 테마감리 예고와 관련한 감독 강화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감리대상 연도인 2017년도를 감독 강화 연도로 지정하여 자본화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테마감리 대상 연도에 자본화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경영자의 자의적인 연구개발지출 자본화가 감독기관의 감독 강화로 어느 정도 제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황주희 외(2020)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테마감리 시행 시 기업이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면 별도로 조치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에 많은 기업들이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같이 테마감리 지정이 효과적이라면 미청구공사 과대계상에 대한 테마감리 지정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 2.3. 가설설정

미청구공사의 회계처리가 테마감리로 지정된 이유는 공사 진행률의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이와 관련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테마감리 지정이 효과적이라면 해당 기업의 미청구공사의 과대계상을 억제할 것이므로 미청구공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보수주의 성향이 강화할 것이다. 보수주의는 호재(Good News)를 이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수준의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고, 악재(Bad News)는 적시에 가급적 빨리 손실로 인식하는 비대칭적 회계처리 특성을 의미한다(Basu 1997). 이러한 보수주의의 특징은 미청구공사의 과대산정이라는 테마감리 지정사유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척도로서 부합한다. 따라서, 테마감리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1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1. 테마감리 지정은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가설1의 결과는 미청구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설1에서의 결과가 미청구공사의 영향을 제거한 경우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추가 검증한다.

만약, 미청구공사의 영향을 제거하였을 때 가설1의 결과보다 보수적 회계처리의 성향이 감소하였다면, 미청구공사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설2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2. 테마감리 지정은 미청구공사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및 표본선정

###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5년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 이후 보수적 회계처리가 강화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Basu(1997) 모형을 통해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한 보수적 회계처리의 영향을 비교한다.

식(1)은 보수주의를 측정하는 Basu(1997)모형이다. 주식수익률이 감소하는 경우를 경제적 사건의 악재로 보고 악재일 때 보수주의 성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내는 지 검증할 수 있다. 만약 보수주의가 증가한다면  $\alpha_3$  계수값이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alpha_1 + \alpha_3 > \alpha_1, \alpha_3 > 0$ ).

$$X_{i,t}(AX_{i,t}) = \alpha_0 + \alpha_1 R_{i,t} + \alpha_2 DR_{i,t} + \alpha_3 R_{i,t} * DR_{i,t} \quad (1)$$

변수정의:

$X_{i,t}$  = 기업  $i$ 의  $t$ 년도 주당 순이익

$R_{i,t}$  = 기업  $i$ 의  $t$ 년도 4월초부터  $t+1$ 년도 3월말까지의 주식수익률

$DR_{i,t}$  = 기업  $i$ 의  $t$ 년도  $R_{i,t}$ 이 음(-)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AX_{i,t} = X_{i,t} - \Delta Unbill_{i,t}$$

$Unbill_{i,t}$  = 기업  $i$ 의  $t$ 년도 주당 미청구공사

$$\Delta Unbill_{i,t} = Unbill_{i,t} - Unbill_{i,t-1}$$

당기순이익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거시적 영향과 각 기업이 속한 사업 고유의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별 가변수와 산업별 가변수를 식(2)와 같이 각각 추가하였다.

$$X_{i,t}(AX_{i,t}) = \alpha_0 + \alpha_1 R_{i,t} + \alpha_2 DR_{i,t} + \alpha_3 R_{i,t} * DR_{i,t}$$

$$\sum YEAR + \sum IND + e_{i,t} \quad (2)$$

변수정의:

$\sum YEAR$ =해당 연도면 1, 그렇지 않으면 0

$\sum IND$ =해당 연도면 1, 그렇지 않으면 0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는지 검증한다. 식(3)은 식(2)에 상호작용변수(*THEME*)를 추가하여 기간 간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한 모형이다. 만약, 보수주의가 증가하였다면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인  $\alpha_7$ 이 양(+)의 값을 보일 것이다.

$$X_{i,t} (AX_{i,t}) = \alpha_0 + \alpha_1 R_{i,t} + \alpha_2 DR_{i,t} + \alpha_3 THEME_{i,t} + \alpha_4 THEME_{i,t} * DR_{i,t} + \alpha_5 THEME_{i,t} * R_{i,t} + \alpha_6 R_{i,t} * DR_{i,t} + \alpha_7 R_{i,t} * DR_{i,t} * THEME_{i,t} + \sum YEAR + \sum IND + e_{i,t} \quad (3)$$

### 3.2. 표본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표본으로 제한하였다.

1. 12월31일이 결산일인 제조업 및 건설업에 속하는 기업
2. 미청구공사 변동액을 추출할 수 있는 기업
3. 주가 및 재무자료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기업
4.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5. 상하1% 수준에서의 극단치에 속하지 않는 기업

본 연구에 사용되는 미청구공사 금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추출하였다. 그 외 자료는 KIS-VA LUE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연도 표본은 총 424개이다. 독립변수들은 전년도 3월말 종가로 규모조정하였다.

## VI. 실증분석

### 4.1. 기술통계

<표 1>은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종속변수인 주당순이익(*X*)에 대한 평균(중위수)은 -0.114(0.036)이었다. 주식수익률(*R*)의 평균(중

위수)은 0.195(-0.028)이었다. 주당 미청구공사(*Unbill*)의 평균(중위수)은 4,876(61,973)이며, 주당 미청구공사 변동액( $\Delta Unbill$ )의 평균(중위수)은 -145.904(-13.018)이었다.

<표 2>는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주당순이익(*X*)과 주식수익률(*R*)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미청구공사(*Unbill*)의 경우에는 주식수익률이나 주당순이익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청구공사의 변동액( $\Delta Unbill$ )은 주당순이익과 주식수익률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회계처리 상 미청구공사의 변동은 순이익과 관련된다. 순이익은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회계적 특징들과 일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1> 기술통계(N=424)

구분	STD	평균	최소값	Q1	중위수	Q3	최대값
<i>X</i>	1.317	-0.114	-14.091	-0.067	0.036	0.087	9.557
<i>R</i>	1.043	0.195	-0.974	-0.236	-0.028	0.241	13.059
<i>Unbill</i>	8,268	4,876	0.017	383.929	1,955	5,095	61,973
$\Delta Unbill$	2,314	-145.904	-9,079	-794	-13.018	378.969	12,067
<i>DR</i>	0.499	0.526	0	0	1	1	1

<표 2> 상관분석

구분	<i>X</i>	<i>R</i>	<i>Unbill</i>	$\Delta Unbill$	<i>DR</i>
	(p값)	(p값)	(p값)	(p값)	(p값)
<i>X</i>					
<i>R</i>	0.362 (0.001)				
<i>Unbill</i>	-0.063 (0.196)	-0.079 (0.105)			
$\Delta Unbill$	0.225 (0.001)	0.172 (0.001)	0.074 (0.129)		
<i>DR</i>	-0.343 (0.001)	-0.865 (0.001)	0.097 (0.046)	-0.133 (0.006)	

### 4.2. 회귀분석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을 강화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Basu(1997) 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3>은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3>의 제1부에서는 테마감리 지정연도에서 타 연도에 비해 보수주의가 증가하였는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관심변수인  $R * THEME * DR$ 의 회귀계수(t값)는 2.822(2.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

였다. 이는 테마감리 지정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테마감리 지정연도의 영향을 제외하고도 지정 전보다 지정 후의 보수적 회계처리가 증가하였는지 확인하였다. 테마감리 지정연도를 제외하여 테마감리 지정 전후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3>의 제2부는 테마감리 지정연도를 제외하고 테마감리 지정 전보다 지정 후에서 보수주의가 증가하였는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관심변수인  $R * THEME * DR$ 의 회귀계수( $t$ 값)는 1.864(1.7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표 3> 테마감리 지정 시 보수적 회계처리 비교

$$X_{i,t} = \alpha_0 + \alpha_1 R_{i,t} + \alpha_2 DR_{i,t} + \alpha_3 THEME_{i,t} + \alpha_4 THEME_{i,t} * DR_{i,t} + \alpha_5 THEME_{i,t} * R_{i,t} + \alpha_6 R_{i,t} * DR_{i,t} + \alpha_7 R_{i,t} * DR_{i,t} * THEME_{i,t} + \sum YEAR + \sum IND + e_{i,t}$$

변수구분	회귀계수	$t$ 값
제1부: 테마감리 지정연도와 그 외 비교( $THEME_1$ )		
상수	0.322	1.39
$R$	-0.413	-4.49***
$DR$	-0.231	-1.19
$THEME$	0.169	0.58
$R * DR$	0.935	1.76*
$R * THEME$	-0.205	-1.55
$DR * THEME$	0.335	0.69
$R * THEME * DR$	<b>2.822</b>	<b>2.14*</b>
$\sum YEAR$   $\sum IND$	포함	
$Adj.R^2$	0.1341	
$N$	424	
제2부: 테마감리 지정 전후 비교( $THEME_2$ )		
상수	0.141	0.61
$R$	0.123	1.18
$DR$	-0.063	-0.26
$THEME$	0.628	2.40*
$R * DR$	0.241	0.41
$R * THEME$	-1.771	-9.51***
$DR * THEME$	-0.509	-1.38
$R * THEME * DR$	<b>1.864</b>	<b>1.73*</b>
$\sum YEAR$   $\sum IND$	포함	
$Adj.R^2$	0.2401	
$N$	351	
주1) $THEME_1$ : 테마감리 지정연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THEME_2$ : 테마감리 지정 이후면 1, 그렇지 않으면 0		
주2)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의미함		

<표 3>의 결과를 통해 테마감리 지정이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킨다. 이는 테마감리 지정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강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는 <표 3>에서 종속변수를  $X$ 에서 미청구공사의 영향을 제거한  $AX$ 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표 4>의 제1부에서는 관심변수인  $R * THEME * DR$ 의 회귀계수( $t$ 값)이 1.134(0.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표 4> 미청구공사 영향 제거 후 테마감리 지정 시 보수적 회계처리 비교

$$AX_{i,t} = \alpha_0 + \alpha_1 R_{i,t} + \alpha_2 DR_{i,t} + \alpha_3 THEME_{i,t} + \alpha_4 THEME_{i,t} * DR_{i,t} + \alpha_5 THEME_{i,t} * R_{i,t} + \alpha_6 R_{i,t} * DR_{i,t} + \alpha_7 R_{i,t} * DR_{i,t} * THEME_{i,t} + \sum YEAR + \sum IND + e_{i,t}$$

변수구분	회귀계수	$t$ 값
제1부: 테마감리 지정연도와 그 외 비교( $THEME_1$ )		
상수	0.256	1.17
$R$	-0.193	-2.21*
$DR$	-0.165	-0.89
$THEME$	0.552	2.00*
$R * DR$	0.436	0.87
$R * THEME$	-0.781	-6.20***
$DR * THEME$	-0.471	-1.03
$R * THEME * DR$	<b>1.134</b>	<b>0.91</b>
$\sum YEAR$   $\sum IND$	포함	
$Adj.R^2$	0.2102	
$N$	424	
제2부: 테마감리 지정 전후 비교( $THEME_2$ )		
상수	0.040	0.17
$R$	0.109	1.01
$DR$	-0.121	-0.48
$THEME$	0.448	1.62
$R * DR$	-0.092	-0.15
$R * THEME$	-0.992	-5.04***
$DR * THEME$	-0.142	-0.37
$R * THEME * DR$	<b>1.500</b>	<b>1.32</b>
$\sum YEAR$   $\sum IND$	포함	
$Adj.R^2$	0.05385	
$N$	351	
주1) $THEME_1$ : 테마감리 지정연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THEME_2$ : 테마감리 지정 이후면 1, 그렇지 않으면 0		
주2)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의미함		

값을 보였다. <표 4>의 제2부에서는 테마감리 지정연도를 제외하고 테마감리 지정 전과 지정 후의 보수주의 성향을 비교한 결과이다. 관심변수  $R * THEME * DR$ 의 회귀계수(t값)는 1.500(1.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미청구공사의 영향을 제외하였을 때 테마감리 지정이 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의 결과를 통해 테마감리의 지정이 미청구공사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테마감리 지정이 미청구공사의 보수적 회계처리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논리와 일관된다. 특히, 미청구공사의 영향이 포함되었을 때에만 보수주의 측정치가 양(+)의 값을 보였다는 것은 테마감리 지정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 V. 결론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테마감리 지정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쳤는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방법은 Basu(1997)의 보수주의 측정 모형을 이용하여 미청구공사 금액 반영여부에 따라 보수주의 측정치의 회귀계수값을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마감리 지정연도 및 지정 이후 모두 관심변수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해당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가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미청구공사의 영향을 제외하였을 때 테마감리 지정연도 및 지정 이후 모두 관심변수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한 해당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증가에 미청구공사의 영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보수주의 강화는 미청구공사의 과대계상에 대한 테마감리 지정의 효과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청구공사를 테마감리 지정 목적에 적합한 보수주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테마감리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영훈·박성욱(2019). 미청구공사(계약자산)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0(4), 125-151.  
 배홍기·양동훈·최준혁(2018). 감사인의 감사노력은 수주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하는가?, *회계저널* 27(5), 29-74.  
 서승철·위준복(2012).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의 효과(이익지속성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3(2), 281-295.  
 신혜정·김수인(2019). 핵심감사제도 도입이 미청구공사 잔액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8(2), 149-171.  
 이계원·한경희(2018). 재무기준 요건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기업의 이익조정행태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25(4), 129-150.  
 이양식·박종찬(2017). 미청구공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35(2), 367-394.  
 최성호·최정호(2017). 미청구공사가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2(4), 107-139.  
 황선영·박종성(2020). 연구개발지출의 자본화 비율과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45(1), 69-110.  
 황주희·최선화·남기만(2020). 전기오류의 수정:M메디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9(2), 219-249.  
 금융감독원(2015. 12. 24.). 2016년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 및 감사인 자율지정신청 예고  
 Basu, S(1997). The Conservatism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1), 3-37.